

## 경제 및 고용 동향

### ◆ 2013년 4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3.7% 증가, 전월대비 1.6% 증가

- 2013년 4월 생산은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에서 늘어 전년동월대비 3.7% 증가함.
  - 제조업 생산은 영상음향통신(-14.6%), 기계장비(-3.9%), 석유정제(-7.2%)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및 부품(9.9%), 화학제품(6.4%), 기타운송장비(9.6%) 등에서는 늘어 전년동월대비 1.8% 증가(전월대비 0.7% 증가)함.
  - 서비스업 생산은 예술·스포츠·여가(-3.0%), 숙박·음식점(-1.0%)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금융·보험(6.7%), 보건·사회복지(4.2%), 운수(4.1%), 부동산·임대(3.1%), 도소매(1.9%) 등에서는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2.6% 증가(전월대비 0.2% 증가)함.
- 2013년 4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2.2% 증가, 투자는 전년동월대비 12.4% 감소함.
  - 소비재판매액지수는 승용차, 가전제품 등 내구재(5.6%),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1.2%),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준내구재(1.1%)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2.2% 증가(전월대비 0.5% 감소)함.
  - 설비투자는 자동차 등에서 투자가 감소하였으나 일반기계류, 전기 및 전자기기 등에서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12.4% 감소(전월대비 4.0% 감소)함.
  - 건설기성(불변)은 건축 및 토목공사 호조로 전월대비 9.4% 증가, 전년동월대비 19.2% 증가하였고, 건설기성(경상)은 전월대비 10.2% 증가, 전년동월대비 18.4% 증가함. 건설수주(경상)는 철도 등에서 증

가하였으나 재개발주택, 토지조성, 도로·교량 등에서 부진하여 전년동월대비 20.6% 감소함.

- 2013년 4월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각각 0.5% 상승함.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건설기성액, 서비스업 생산 지수 등이 증가하여 전월대비 0.2p 상승함.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기계류내수출하지수, 구인 구직비율 등은 감소하였으나 건설수주액, 재고순환지표 등이 증가하여 전월대비 0.1p 상승함.

◆ 2013년 5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1.0% 상승(생활물가지수 0.2% 상승)

- 2013년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7.3(2010년=100)으로 나타나 전월대비 변동이 없고, 전년동월대비 1.0% 상승하여 2012년 11월의 1.6% 상승 이후 7개월 연속 1%대 상승을 기록함.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년동월대비 교통(-2.6%), 가정용품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2010					2011					2012					2013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p	연간p	4월	1/4	4월p
생산	광공업 생산	25.8	19.5	10.9	11.7	16.2	10.4	7.2	5.3	5.0	6.9	3.8	1.5	0.4	1.1	1.7	-0.4	-1.7	1.7(0.8)
	제조업 생산	26.8	20.2	11.2	11.9	16.3	10.6	7.4	5.1	5.3	7.0	4.2	1.5	0.3	1.2	1.8	-0.5	-1.7	1.8(0.7)
	출하	21.8	17.2	9.9	11.9	14.3	11.9	7.2	4.9	3.5	6.7	3.3	1.5	0.4	-0.1	1.3	-1.0	-2.1	1.6(0.0)
	내수	21.2	15.4	6.6	8.3	11.5	6.8	3.8	2.7	0.2	3.3	0.3	-1.3	-1.5	-1.9	-1.1	-2.5	-2.6	0.5(0.2)
	수출	22.5	19.7	14.5	16.9	18.1	18.1	11.6	7.7	7.2	10.8	6.7	4.9	2.3	1.8	3.9	1.0	-1.5	2.7(-0.3)
	서비스업 생산	5.7	4.0	2.3	3.1	3.9	2.8	3.3	4.5	2.7	3.3	2.5	1.7	1.6	1.3	1.7	0.6	0.7	2.6(0.2)
소비	소비재 판매	9.9	4.9	7.5	5.1	6.7	5.4	5.7	4.7	1.9	4.3	2.0	1.0	1.7	2.5	1.8	0.4	0.2	2.2(-0.5)
투자	설비투자	25.5	24.5	29.3	13.5	24.2	5.4	4.8	-3.1	-4.7	0.7	9.4	-0.4	-7.1	-5.6	-1.1	2.8	-14.4	-12.4(-4.0)
물가		2.7	2.6	2.9	3.6	3.0	4.8	4.2	4.8	4.0	3.0	2.4	1.6	1.7	2.2	2.5	1.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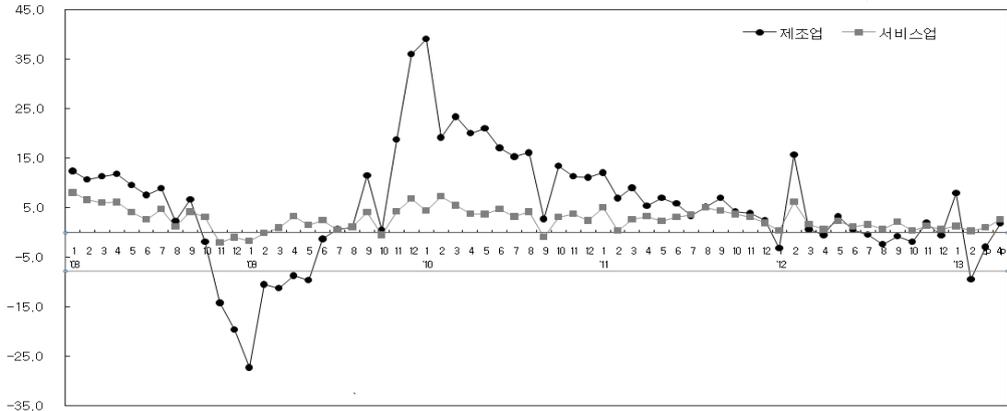
주: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2007. 12. 28)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을 포괄하며, 이 중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  
 3) 물가상승률은 2013년 5월 기준임.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및 가사서비스(-0.5%), 기타 상품 및 서비스(-0.5%) 부문만 하락하였고, 주택·수도·전기·연료(3.9%), 의류 및 신발(2.3%), 주류 및 판매(2.0%), 음식 및 숙박(1.5%), 교육(1.0%) 부문 등을 중심으로 상승함.

- 2013년 5월 생활물가지수는 106.3을 기록하여 전월대비 0.4% 하락, 전년동월대비 0.2% 상승함.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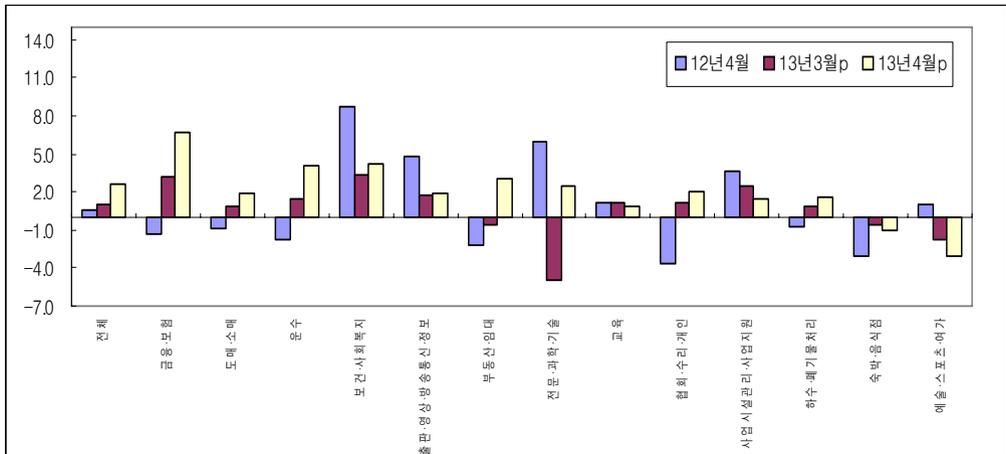
(단위: %, 전년동월대비)



주: p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2012. 5), 『2013년 4월 산업활동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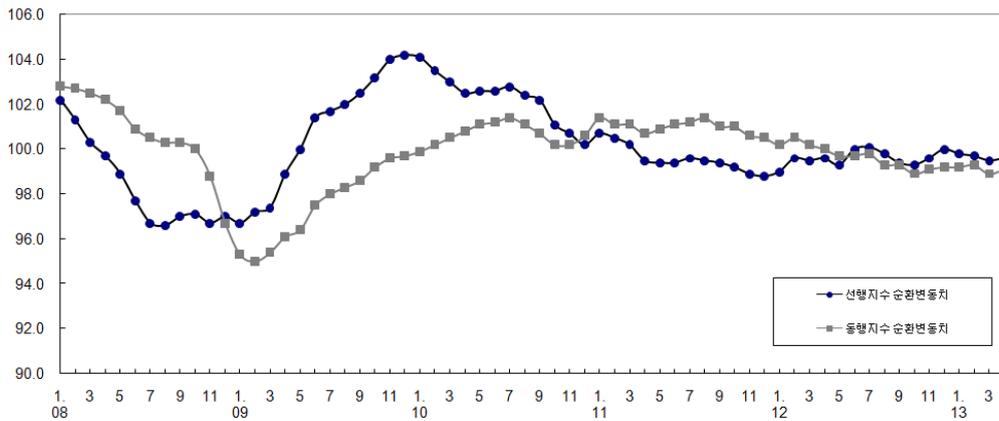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추이

(단위: %,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주: p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KOSIS.

[그림 3]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2010=100)



자료 : 통계청, KOSIS.

(김복순,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

#### ◆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전년동월대비 하락

- 2013년 5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6,19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6천 명(1.0%) 증가함.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5,195천 명으로 146천 명(1.0%) 증가하였고, 여성은 11,000천 명으로 110천 명(1.0%) 증가하였음.
- 2013년 5월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2.3%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함.
  - 성별로 보면, 남성(73.9%)과 여성(51.2%)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0.2%p, 0.1%p 하락함(그림 4 좌측 참조).
- 2013년 5월 중 고용률은 60.4%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함.
  - 남성의 고용률은 71.6%로 전년동월대비 0.1%p, 여성의 고용률은 49.7%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함(그림 4 우측 참조).
- 2013년 5월 중 취업자는 25,39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5천 명(1.1%)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4,71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3명(1.1%) 증가하였고, 여성 취업자는 10,68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2천 명(1.1%) 증가하였음(그림 5 참조).
- 2013년 5월 중 실업자는 79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천 명(-1.2%) 감소하였고, 실업률은 3.0%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함.

- 남성 실업자는 48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천 명(-1.5%) 감소하였고, 여성 실업자는 31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천 명(0.7%) 감소하였음.
- 실업률은 남성이 3.2%, 여성은 2.9%로 둘 다 전년동월과 동일

〈표 2〉 최근의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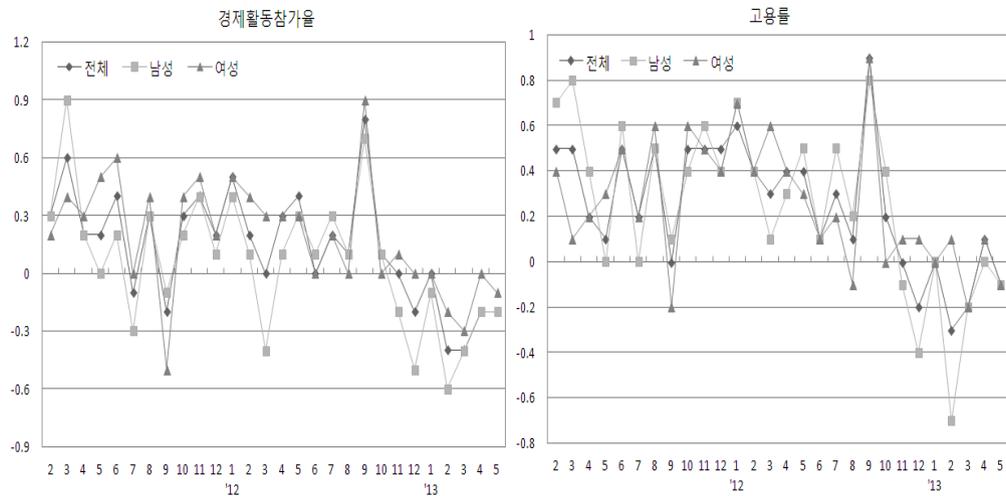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1		2012				2013		
	4/4분기	1/4분기	2/4분기	5월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4월	5월
경제활동인구	25,202 ( 1.6)	24,873 ( 1.6)	25,844 ( 1.6)	25,939 (1.8)	25,760 ( 1.9)	25,526 ( 1.3)	25,091 ( 0.9)	25,928 ( 1.1)	26,195 ( 1.0)
참가율	61.1	60.1	62.3	62.5	61.8	61.1	59.9	61.7	62.3
취업자	24,462 ( 2.0)	23,927 ( 2.0)	25,003 ( 1.8)	25,133 (1.9)	24,989 ( 2.1)	24,804 ( 1.4)	24,184 ( 1.1)	25,103 ( 1.4)	25,398 ( 1.1)
고용률	59.4	57.8	60.2	60.5	60.0	59.4	57.7	59.8	60.4
실업자	740	947	841	807	770	722	907	825	797
실업률	2.9	3.8	3.3	3.1	3.0	2.8	3.6	3.2	3.0
비경제활동인구	16,014 ( 0.3)	16,495 ( 0.6)	15,669 ( 0.7)	15,579 (0.4)	15,904 ( 0.4)	16,258 ( 1.5)	16,831 ( 2.0)	16,074 ( 1.7)	15,853 ( 1.8)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100  
 자료 : 통계청(2013. 6), 『2013년 5월 고용동향』.

〈그림 4〉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좌)과 고용률(우)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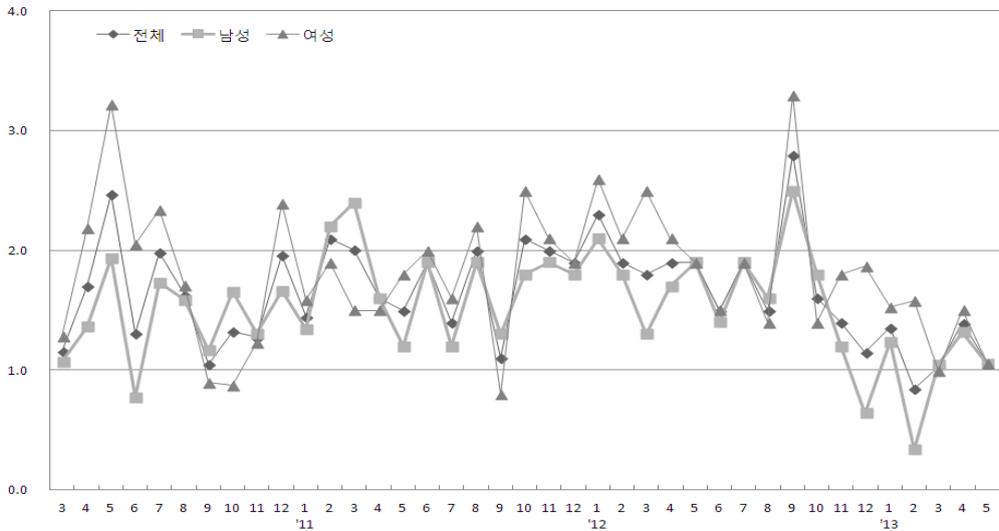
(단위 :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5] 성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2013년 5월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5,85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3천 명(1.8%) 증가함.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36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9천 명(2.1%) 증가하였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0,49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4천 명(1.6%) 증가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17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천 명 감소하였음.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쉬었음'은 1,40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4천 명(5.6%) 증가하였고, 정규교육기관 재학,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을 포함하는 '재학·수강'은 4,329천 명으로 118천 명(2.8%) 증가하였음.

◆ 제조업 취업자 증가 지속

- 2013년 5월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제조업(105천 명, 2.6%),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41천 명, 1.6%), 전기·운수·통신·금융업(86천 명, 2.9%)에서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41천 명, -2.4%), 건설업(-13천 명, -0.7%),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15천 명, -0.3%)에서는 감소함.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1		2012				2013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5월	3/4분기			4월	5월
전 산업	24,462 ( 2.0)	23,927 ( 2.0)	25,003 ( 1.8)	25,133 ( 1.9)	24,989 ( 2.1)	24,804 ( 1.4)	24,184 ( 1.1)	25,103 ( 1.4)	25,398 ( 1.1)
농림어업	1,521 (-1.5)	1,176 (-2.6)	1,713 (-1.4)	1,755 (-1.2)	1,706 ( 0.1)	1,518 (-0.2)	1,167 (-0.7)	1,591 (-1.3)	1,714 (-2.4)
제조업	4,056 (-1.8)	4,037 (-2.5)	4,061 (-1.6)	4,071 (-1.6)	4,126 ( 2.1)	4,196 ( 3.5)	4,156 ( 3.0)	4,192 ( 4.1)	4,192 ( 2.6)
건설업	1,832 ( 4.0)	1,721 ( 4.8)	1,807 ( 1.9)	1,819 ( 1.8)	1,772 ( 1.0)	1,792 (-2.2)	1,656 (-3.7)	1,778 (-0.5)	1,807 (-0.7)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542 ( 1.8)	5,571 ( 1.8)	5,596 ( 2.6)	5,613 ( 3.0)	5,610 ( 2.1)	5,603 ( 1.1)	5,534 (-0.7)	5,515 (-1.2)	5,598 (-0.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8,486 ( 3.1)	8,398 ( 3.7)	8,820 ( 3.4)	8,872 ( 3.5)	8,772 (3.5)	8,682 ( 2.3)	8,656 ( 3.1)	8,936 ( 2.1)	9,013 ( 1.6)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3,011 ( 5.5)	3,011 ( 4.5)	2,991 ( 2.0)	2,988 ( 2.1)	2,990 (-0.4)	2,998 (-0.4)	2,999 (-0.4)	3,074 ( 3.0)	3,074 ( 2.9)

주 : 1)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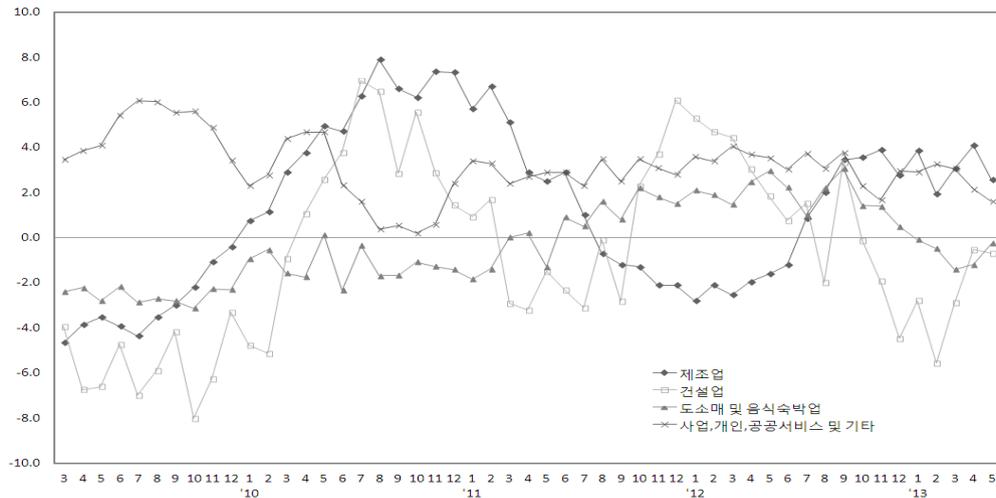
2) 2009년부터 9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

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 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자료 : 통계청(2013. 6), 『2013년 5월 고용동향』.

〈그림 6〉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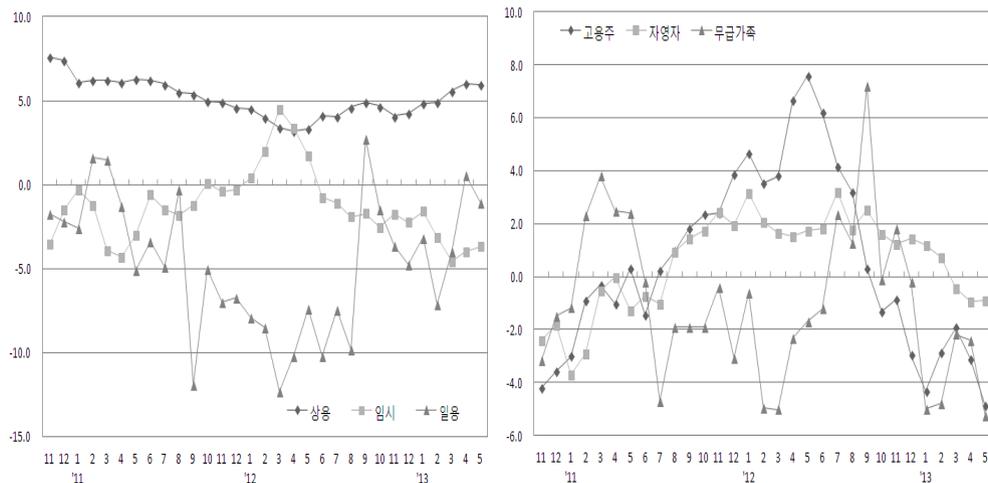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S.

◆ 비임금근로자 감소 지속

- 2013년 5월 중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는 7,01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8천 명(-2.6%) 감소하였고, 임금근로자는 18,38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53천 명(2.5%) 증가하였음.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1,726천 명으로 661천 명(6.0%)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4,964천 명으로 190천 명(-3.7%) 감소하였고, 일용근로자는 1,699천 명으로 19천 명(-1.1%) 감소하였음.
  -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임금근로자 증가가 이루어지는 있는 추세가 이어짐(그림 7 좌측 참조)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고용주 포함)는 5,729천 명으로 117천 명(-2.0%) 감소하였고, 무급가족종사자는 1,281천 명으로 71천 명(-5.2%) 감소하였음.

(그림 7) 임금근로자(좌) 및 비임금근로자(우)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이고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  
 자료: 통계청, KOSIS.

- 2013년 5월 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7,78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496천 명(136.6%) 증가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7,338천 명으로 4,226천 명(-19.6%) 감소하였음. 이는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기간 중에 석가탄신일(5.17일)이 포함된 영향으로 보임.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1	2012					2013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5월	6월			4월	5월	
전 체	24,462 ( 2.0)	23,927 ( 2.0)	25,003 ( 1.8)	25,133 ( 1.9)	24,989 ( 2.1)	24,804 ( 1.4)	24,184 ( 1.1)	25,103 ( 1.4)	26,195 ( 1.1)	
비임금근로자	6,878 ( 1.5)	6,650 ( 1.6)	7,154 ( 2.1)	7,198 ( 2.3)	7,154 ( 2.7)	6,917 ( 0.6)	6,578 (-1.1)	6,959 (-1.7)	7,010 (-2.6)	
자영업자	5,639 ( 2.3)	5,548 ( 2.8)	5,830 ( 3.1)	5,846 ( 3.3)	5,823 ( 2.5)	5,672 ( 0.6)	5,520 (-0.5)	5,716 (-1.5)	5,729 (-2.0)	
무급가족종사자	1,239 (-2.0)	1,102 (-3.6)	1,324 (-1.7)	1,351 (-1.7)	1,331 ( 3.6)	1,245 ( 0.5)	1,059 (-3.9)	1,243 (-2.4)	1,281 (-5.2)	
임금근로자	17,585 ( 2.2)	17,277 ( 2.1)	17,849 ( 1.6)	17,935 ( 1.8)	17,835 ( 1.8)	17,887 ( 1.7)	17,606 ( 1.9)	18,145 ( 2.6)	18,388 ( 2.5)	
상용근로자	10,820 ( 4.8)	10,825 ( 4.0)	11,059 ( 3.5)	11,064 ( 3.3)	11,216 ( 4.5)	11,288 ( 4.3)	11,379 ( 5.1)	11,616 ( 6.0)	11,726 ( 6.0)	
임시근로자	5,042 (-0.2)	4,914 ( 2.3)	5,114 ( 1.4)	5,153 ( 1.8)	4,992 (-1.6)	4,933 (-2.2)	4,762 (-3.1)	4,892 (-4.0)	4,964 (-3.7)	
일용근로자	1,723 (-6.3)	1,538 (-9.6)	1,675 (-9.3)	1,718 (-7.4)	1,627 (-5.2)	1,666 (-3.3)	1,465 (-4.8)	1,636 ( 0.6)	1,699 (-1.1)	
36시간 미만	3,217 ( 4.1)	3,313 ( 2.1)	3,284 ( 2.3)	3,290 ( 2.8)	4,722 (-44.2)	3,219 ( 0.0)	5,563 (67.9)	3,333 (-1.0)	7,786 (136.6)	
36시간 이상	20,937 ( 1.5)	20,081 ( 1.7)	21,425 ( 1.7)	21,564 ( 1.9)	19,770 (28.2)	21,271 ( 1.6)	18,099 (-9.9)	21,479 ( 1.8)	17,338 (-19.6)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통계청(2013. 6), 『2013년 5월 고용동향』.

◆ 15~29세 실업률 하락

- 2013년 5월 중 연령별 실업률은 40대(2.1%, 0.3%p), 50대(1.9%, 0.1%p)에서 상승하고 15~29세(7.4%, -0.6%p) 등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하락함.
  - 교육정도별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고졸(3.2%, -0.1%p)과 대졸 이상(3.3%, -0.2%p)에서는 하락하였고, 중졸 이하(2.1%, 0.1%p)에서는 상승하였음.
- 2013년 5월 중 전체 실업자 797천 명을 과거 취업경험 유무로 살펴보면, 취업무경험 실업자는 4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천 명 감소하였고, 취업유경험 실업자는 753천 명으로 3천 명 감소하였음.

〈표 5〉 연령별·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1	2012					2013		
	4/4분기	1/4분기	2/4분기	5월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4월	5월
전 체	740 (2.9)	947 (3.8)	841 (3.3)	807 (3.1)	770 (3.0)	722 (2.8)	907 (3.6)	825 (3.2)	797 (3.0)
15~29세	292 (7.1)	346 (8.2)	341 (8.1)	342 (8.0)	283 (6.8)	284 (7.0)	343 (8.4)	340 (8.4)	307 (7.4)
30~39세	171 (2.9)	190 (3.2)	188 (3.2)	184 (3.1)	166 (2.8)	162 (2.7)	195 (3.3)	182 (3.1)	181 (3.0)
40~49세	131 (1.9)	164 (2.4)	135 (2.0)	123 (1.8)	133 (2.0)	122 (1.8)	143 (2.1)	149 (2.2)	143 (2.1)
50~59세	94 (1.8)	124 (2.3)	112 (2.0)	98 (1.8)	123 (2.2)	102 (1.8)	127 (2.3)	109 (1.9)	109 (1.9)
60세 이상	53 (1.8)	124 (4.4)	66 (2.0)	60 (1.7)	65 (1.9)	52 (1.6)	99 (3.4)	45 (1.3)	58 (1.6)
중졸 이하	108 (2.1)	187 (4.0)	112 (2.2)	103 (2.0)	106 (2.1)	98 (2.0)	148 (3.3)	94 (1.9)	105 (2.1)
고졸	349 (3.5)	408 (4.1)	356 (3.5)	335 (3.3)	350 (3.4)	321 (3.2)	367 (3.7)	340 (3.4)	330 (3.2)
대졸 이상	284 (2.8)	352 (3.4)	373 (3.5)	369 (3.5)	314 (3.0)	303 (2.9)	392 (3.7)	391 (3.6)	363 (3.3)
취업무경험실업자	44	58	48	51	36	39	61	52	45
취업유경험실업자	696	889	793	756	734	683	845	773	753

주: (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통계청(2013. 6), 『2013년 5월 고용동향』.

(배기준,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

##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 2013년 3월 명목임금상승률 전년동월대비 4.1% 상승

- 2013년 3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000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2,883천 원) 4.1% 상승함.
  - 2013년 3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정액급여와 특별급여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4.0% 상승한 3,174천 원을 기록함.

- 상용근로자의 경우 기본급 등을 포함한 정액급여는 전년동월대비 4.9% 상승해 2,572천 원을 기록함.
  -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1.1% 상승하여 418천 원을 기록한 반면, 초과급여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1.6% 하락하여 184천 원을 기록함.  
 ※ 초과급여: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특별급여: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임시·일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5.2% 상승한 1,353천 원의 임금총액을 기록함.
- 2013년 1~3월 평균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164천 원으로 전년동평균(3,051천 원)대비 3.7% 상승함.
-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2012년 1~3월 평균 대비 3.8% 상승한 3,346천 원을 기록함.
  - 상용근로자 가운데 정액급여는 2012년 1~3월 평균 대비 4.7%, 초과급여는 0.8%, 특별급여는 1.1% 상승함.
  - 임시·일용근로자는 2012년 1~3월 평균 대비 5.5% 상승한 1,377천 원의 임금총액을 기록함.

〈표 6〉 임금관련 주요 지표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2010=100.0)

	2010	2011	2012	2013				
				1~3월 평균	3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2,816 ( 6.8)	2,844 ( 1.0)	2,995 ( 5.3)	3,051 ( 7.8)	2,883 ( 5.5)	3,164 ( 3.7)	3,000 ( 4.1)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3,047 ( 6.4)	3,019 (-0.9)	3,178 ( 5.3)	3,223 ( 7.7)	3,053 ( 5.3)	3,174 ( 4.0)	
	정액급여	2,234 ( 4.5)	2,341 ( 4.8)	2,470 ( 5.5)	2,443 ( 5.9)	2,452 ( 5.6)	2,559 ( 4.7)	2,572 ( 4.9)
	초과급여	196 (12.2)	179 (-8.4)	181 ( 1.0)	175 ( 4.4)	187 ( 5.8)	176 ( 0.8)	184 (-1.6)
	특별급여	617 (12.3)	498 (-19.3)	527 ( 5.8)	604 (17.0)	414 ( 3.7)	611 ( 1.1)	418 ( 1.1)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056 (-1.6)	1,215 (15.1)	1,293 ( 6.4)	1,306 (13.7)	1,287 (12.7)	1,377 ( 5.5)	1,353 ( 5.2)	
소비자물가지수	100.0 ( 2.9)	104.0 ( 4.0)	106.3 ( 2.2)	105.9 ( 3.3)	106.0 ( 2.6)	107.5 ( 1.5)	107.4 ( 1.3)	
실질임금증가율	3.8	-2.9	3.1	4.4	2.8	2.2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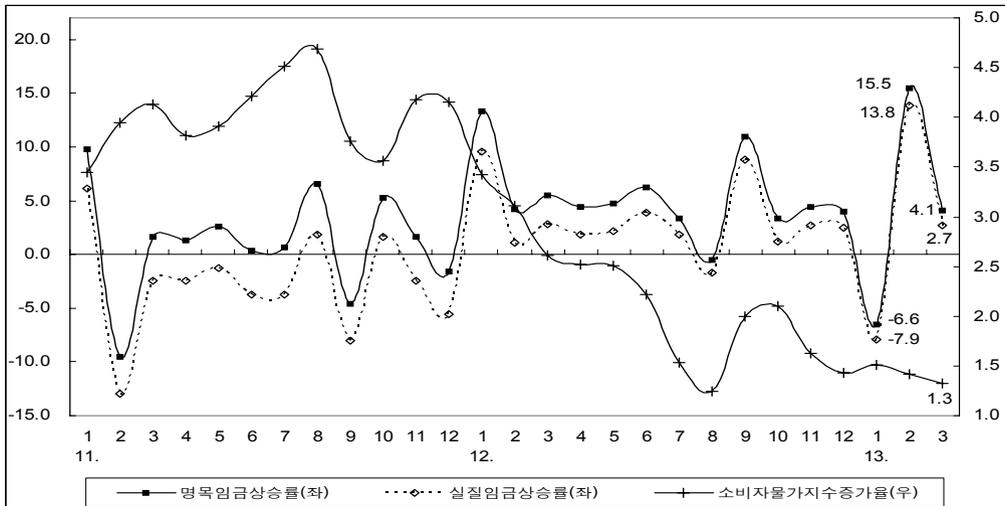
주: 1)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2) 1~3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그림 8]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 2010=100.0)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3년 3월 실질임금은 2.7% 상승함.
  - 2013년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2010년 기준)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2.7% 상승함(그림 8 참조).
  - 2013년 1~3월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2013년 1~3월 평균 실질임금 증가율은 2.2% 상승함.

◆ 2013년 대부분 산업에서 임금 상승

- 2013년 3월 기준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전산업에서 임금이 상승함.
  - 2013년 3월 산업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상승률을 보면,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8.1%), 사업서비스업(7.4%), 여가관련 서비스업(7.4%), 건설업(6.1%), 교육서비스업(5.7%) 등 대부분 산업에서 전년동월대비 임금총액이 크게 증가함.
  - 2013년 3월 월평균 임금총액이 하락한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2.8%)임.
  - 월평균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이며, 가장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나타남.
- 2013년 1~3월 평균 기준 전산업에서 임금이 증가함.
  - 2013년 1~3월 평균 기준 임금 상승이 가장 높게 나타난 산업은 여가관련 서비스업(8.4%)임.
  - 특히 광업(6.6%), 운수업(6.5%), 건설업(6.1%), 제조업(6.0%) 등에서 두드러짐.

〈표 7〉 산업별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2011	2012	2013			
			1~3월 평균		3월	
			1~3월 평균	3월	1~3월 평균	3월
전 산업	2,844( 1.0)	2,995( 5.3)	3,051( 7.8)	2,883( 5.5)	3,164( 3.7)	3,000( 4.1)
광업	3,309(10.3)	3,470( 4.9)	3,385( 7.0)	3,337( 6.3)	3,609( 6.6)	3,449( 3.3)
제조업	3,034( 1.6)	3,221( 6.1)	3,292(10.5)	2,967( 6.7)	3,488( 6.0)	3,108( 4.7)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482( 0.5)	5,388(-1.7)	5,105( 1.8)	5,927( 5.6)	5,283( 3.5)	6,406( 8.1)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2,488( 1.9)	2,654( 6.7)	2,573( 6.8)	2,491( 5.7)	2,693( 4.7)	2,613( 4.9)
건설업	2,181(12.2)	2,273( 4.2)	2,335( 5.5)	2,254( 2.5)	2,477( 6.1)	2,394( 6.2)
도매 및 소매업	2,942( 6.3)	3,122( 6.1)	3,142( 9.0)	2,989( 5.1)	3,186( 1.4)	3,106( 3.9)
운수업	2,393( 0.5)	2,589( 8.2)	2,515( 9.9)	2,416( 5.6)	2,679( 6.5)	2,549( 5.5)
숙박 및 음식점업	1,653(13.0)	1,738( 5.2)	1,705( 5.7)	1,648( 6.5)	1,744( 2.3)	1,715( 4.1)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3,692( 9.1)	3,851( 4.3)	4,044( 7.8)	4,093( 7.6)	4,103( 1.4)	4,218( 3.0)
금융 및 보험업	4,771( 1.9)	4,988( 4.6)	5,320( 6.3)	5,276( 7.8)	5,395( 1.4)	5,128(-2.8)
부동산업 및 임대업	2,017( 2.6)	2,194( 8.8)	2,205(10.3)	2,132(10.8)	2,214( 0.4)	2,155( 1.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870(-2.2)	4,112( 6.3)	4,066( 9.2)	3,884( 6.0)	4,111( 1.1)	4,043( 4.1)
사업서비스업	1,700(-8.0)	1,789( 5.3)	1,771( 5.9)	1,716( 4.2)	1,848( 4.3)	1,844( 7.4)
교육서비스업	2,985(-5.4)	3,123( 4.6)	3,300( 4.2)	2,929( 1.3)	3,475( 5.3)	3,095( 5.7)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490(-4.0)	2,608( 4.7)	2,648( 7.6)	2,602( 8.9)	2,676( 1.1)	2,615( 0.5)
여가관련 서비스업	2,130( 1.1)	2,211( 3.8)	2,161( 1.0)	2,118( 2.9)	2,343( 8.4)	2,273( 7.4)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185( 3.9)	2,228( 2.0)	2,258( 4.0)	2,125( 2.7)	2,258( 0.0)	2,153( 1.3)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총액.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3) 9차 산업분류 기준.  
 4) 1~3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3년 3월 사업체규모별 전체에서 상용근로자 임금상승률 상승

○ 2013년 3월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 명목임금총액 상승률은 전 사업체에서 모두 상승함.

- 2013년 3월 기준 상용근로자 5~299인 규모의 상용임금총액은 정액급여(4.7%), 초과급여(2.9%), 특별급여(5.7%) 모두가 증가한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4.7%(2,866천 원) 상승함.
- 한편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의 상용임금총액은 정액급여(5.4%) 증가의 영향으로 2.3% 증가한 4,271천 원을 기록한 반면, 초과급여(-10.2%)와 특별급여(-3.8%)는 감

소함.

- 2013년 1~3월 평균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 명목임금총액 상승률은 전 사업체에서 증가함.
  - 상용근로자 5~299인 규모의 임금상승률(3.6%)은 정액급여(4.7%)와 초과급여(2.2%)의 영향으로 상승하였지만, 특별급여는 2013년 1~3월 평균 대비 2.0% 하락함.
  - 한편 300인 이상 규모의 임금상승률(4.4%)은 정액급여(5.0%), 특별급여(4.4%)의 영향으로 상승하였지만, 초과급여(-1.8%)는 하락함.

〈표 8〉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비상용근로자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2011		2012		2013	
				1~3월 평균	3월	1~3월 평균	3월
전 규모 (5인 이상)	상용임금총액	3,019( -0.9)	3,178( 5.3)	3,223( 7.7)	3,053( 5.3)	3,346( 3.8)	3,174( 4.0)
	정액급여	2,341( 4.8)	2,470( 5.5)	2,443( 5.9)	2,452( 5.6)	2,559( 4.7)	2,572( 4.9)
	초과급여	179( -8.4)	181( 1.0)	175( 4.4)	187( 5.8)	176( 0.8)	184( -1.6)
	특별급여	498(-19.3)	527( 5.8)	604(17.0)	414( 3.7)	611( 1.1)	418( 1.1)
	비상용임금총액	1,215( 15.1)	1,293( 6.4)	1,306(13.7)	1,287(12.7)	1,377( 5.5)	1,353( 5.2)
5~299인	상용임금총액	2,675( -0.9)	2,834( 5.9)	2,827( 7.0)	2,737( 5.9)	2,930( 3.6)	2,866( 4.7)
	정액급여	2,204( 5.9)	2,333( 5.9)	2,302( 6.2)	2,306( 6.0)	2,409( 4.7)	2,414( 4.7)
	초과급여	150(-14.5)	156( 3.5)	148( 4.8)	158( 8.0)	151( 2.2)	162( 2.9)
	특별급여	321(-27.3)	345( 7.7)	377(13.2)	273( 3.7)	369(-2.0)	289( 5.7)
	비상용임금총액	1,216( 14.8)	1,301( 7.0)	1,314(14.4)	1,304(13.2)	1,393( 6.0)	1,369( 5.0)
300인 이상	상용임금총액	4,273( -0.4)	4,424( 3.5)	4,624( 6.7)	4,176( 2.0)	4,828( 4.4)	4,271( 2.3)
	정액급여	2,842( 2.3)	2,965( 4.3)	2,944( 3.4)	2,973( 3.0)	3,091( 5.0)	3,132( 5.4)
	초과급여	286( 6.7)	275(-3.9)	271( 0.7)	290(-0.9)	266(-1.8)	260(-10.2)
	특별급여	1,146( -8.0)	1,185( 3.4)	1,409(15.6)	914(-0.2)	1,470( 4.4)	879( -3.8)
	비상용임금총액	1,208( 17.8)	1,209( 0.1)	1,208( 4.6)	1,095( 6.6)	1,209( 0.1)	1,186(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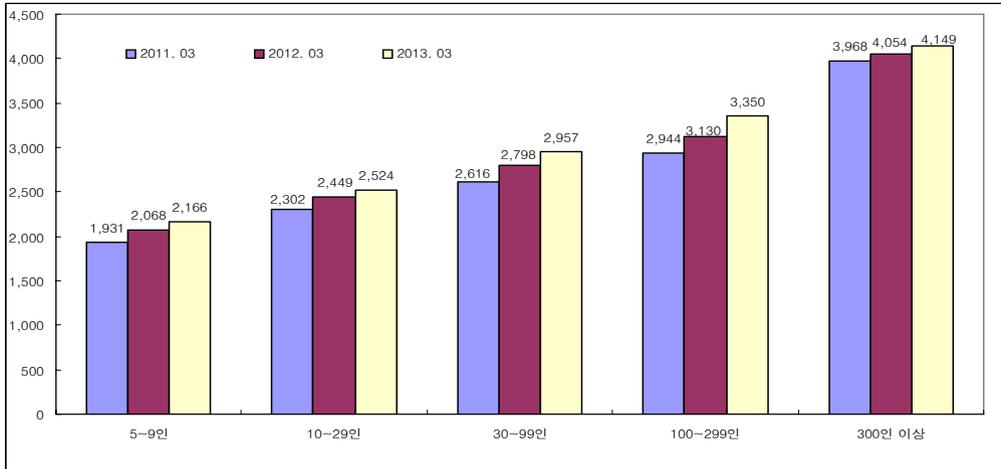
주: 1)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2) 1~3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9] 상용근로자 사업체규모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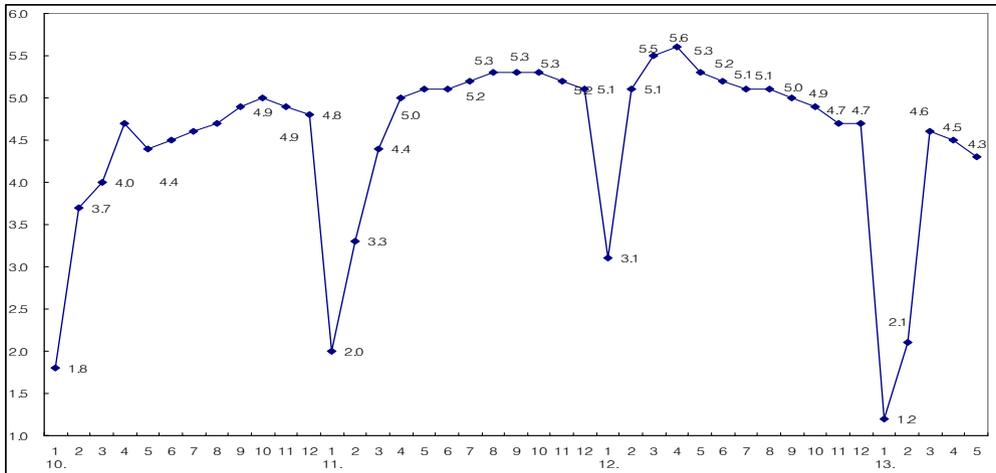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3년 5월 협약임금 인상률 4.3%

○ 2013년 5월 임금총액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은 4.3%로 2012년 월 인상률(5.3%)에 비해 1.0%p 하락함.

[그림 10]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

(단위: %)



주: 1) 협약임금 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등 변동성 급여는 제외됨.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름.

2) 월별 협약임금 인상률은 당월분이 아니라 당월까지 누계분 인상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e-나라지표, www.index.go.kr

◆ 2013년 3월 근로시간 4.3% 감소

- 2013년 3월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4.3% 감소함.
  - 2013년 3월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69.5시간을 기록하여 전년 동월(177.1시간)에 비해 7.6시간(-4.3%) 감소함(표 9 참조).
  - 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174.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4.6% 감소한 반면, 비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119.7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8% 증가함.
- 2013년 1~3월 평균 근로시간은 전년동평균대비 2.3% 감소함.
  - 2013년 1~3월 평균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70.7시간을 기록하여 전년동평균(174.7시간)에 비해 4시간(-2.3%) 감소함.
  - 2013년 1~3월 평균 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175.1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2.6% 감소한 반면, 비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127.1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2.5% 증가함.

〈표 9〉 내역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

(단위: 천 원, %)

	2011	2012	2013			
			1~3월 평균		1~3월 평균	
			3월	3월	3월	3월
전체 근로시간	176.3 (-0.2)	174.3 (-1.1)	174.7 ( 1.5)	177.1 (-3.8)	170.7 (-2.3)	169.5 (-4.3)
상용총근로시간	182.1 (-1.4)	179.9 (-1.2)	179.7 ( 1.4)	183.3 (-3.9)	175.1 (-2.6)	174.8 (-4.6)
상용소정실근로시간	168.5 ( 0.1)	167.2 (-0.8)	166.9 ( 1.5)	170.0 (-4.3)	163.2 (-2.2)	162.3 (-4.5)
상용초과근로시간	13.6 (-17.1)	12.8 (-5.9)	12.7 (-0.8)	13.3 ( 0.8)	11.9 (-6.3)	12.5 (-6.0)
비상용근로시간	122.5 ( 6.2)	122.3 (-0.2)	124.0 ( 4.1)	118.8 (-0.2)	127.1 ( 2.5)	119.7 ( 0.8)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근로시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3) 1~3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3년 3월 전 산업에서 근로시간 감소

- 2013년 3월 모든 산업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함.
  - 2013년 3월 전년동월대비 산업별 근로시간을 보면, 광업(177.2시간, -6.4%), 숙박 및 음식점업(171.4시간, -6.3%), 교육서비스업(142.7시간, -5.9%) 등 전산업에서 근로시간이 증가함.
  - 2013년 3월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은 부동산 및 임대업(190.0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교육서비스업(147.2시간)이 가장 짧은 업종으로 나타남.

- 2013년 1~3월 평균 근로시간은 대부분 산업에서는 감소함.
  - 2013년 1~3월 평균 근로시간이 감소한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73.0시간, -6.9%), 운수업(175.0, -3.6%), 부동산업 및 임대업(189.9시간, -2.8%) 등에서 근로시간이 증가함.
  - 반면 건설업(155.9시간, 1.6%)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함.

〈표 10〉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시간, %)

	2011	2012	2013			
			1~3월 평균		1~3월 평균	3월
			1~3월 평균	3월		
전 산업	176.3(-0.2)	174.3(-1.1)	174.7( 1.5)	177.1(-3.8)	170.7(-2.3)	169.5(-4.3)
광업	186.9(-0.6)	185.3(-0.9)	185.5( 3.1)	189.3(-3.5)	178.9(-3.6)	177.2(-6.4)
제조업	190.6(-0.8)	186.4(-2.2)	186.6( 0.4)	190.9(-4.1)	181.9(-2.5)	181.8(-4.8)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77.1( 0.1)	175.5(-0.9)	175.2( 2.0)	174.5(-2.1)	171.8(-1.9)	167.6(-4.0)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186.2(-3.5)	184.8(-0.8)	184.5( 2.2)	189.3(-2.0)	178.8(-3.1)	178.6(-5.7)
건설업	153.9( 5.3)	152.5(-0.9)	153.4( 0.3)	153.7(-4.4)	155.9( 1.6)	151.3(-1.6)
도매 및 소매업	175.1(-1.2)	174.5(-0.3)	173.8( 1.9)	176.1(-3.3)	171.5(-1.3)	170.8(-3.0)
운수업	181.6(-1.6)	181.7( 0.1)	181.6( 3.5)	184.2(-1.0)	175.0(-3.6)	176.8(-4.0)
숙박 및 음식점업	186.2(13.7)	186.6( 0.2)	185.9( 3.0)	183.0(-1.4)	173.0(-6.9)	171.4(-6.3)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164.5(-1.0)	163.9(-0.4)	162.7( 1.6)	165.0(-5.0)	160.4(-1.4)	158.5(-3.9)
금융 및 보험업	163.6(-1.0)	163.4(-0.1)	163.8( 3.2)	165.5(-3.9)	161.3(-1.5)	158.5(-4.2)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4.2(-3.1)	193.4(-0.4)	195.4( 1.7)	197.2(-1.8)	189.9(-2.8)	190.0(-3.7)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6.2(-0.1)	165.3(-0.5)	165.3( 2.4)	167.9(-4.4)	160.6(-2.8)	160.4(-4.5)
사업서비스업	172.1(-4.4)	173.1( 0.6)	173.2( 4.2)	174.4(-3.3)	169.4(-2.2)	168.2(-3.6)
교육서비스업	152.9( 2.0)	151.1(-1.2)	152.1( 2.1)	151.7(-6.5)	149.1(-2.0)	142.7(-5.9)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73.5(-1.7)	174.8( 0.7)	173.9( 2.6)	176.9(-1.8)	169.8(-2.4)	169.1(-4.4)
여가관련 서비스업	157.1(-1.0)	158.1( 0.6)	155.3( 1.7)	160.1(-1.7)	153.9(-0.9)	155.8(-2.7)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73.6(-0.2)	168.9(-2.7)	168.3(-1.8)	171.5(-5.7)	165.6(-1.6)	164.2(-4.3)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기준.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3) 9차 산업분류 기준.  
 4) 1~3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3년 3월 모든 규모에서 근로시간 감소

- 2013년 3월 사업체규모별 전체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모든 규모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함.
  - 상용근로자 5~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67.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4.9%, 10~2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67.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3.5%, 30~99인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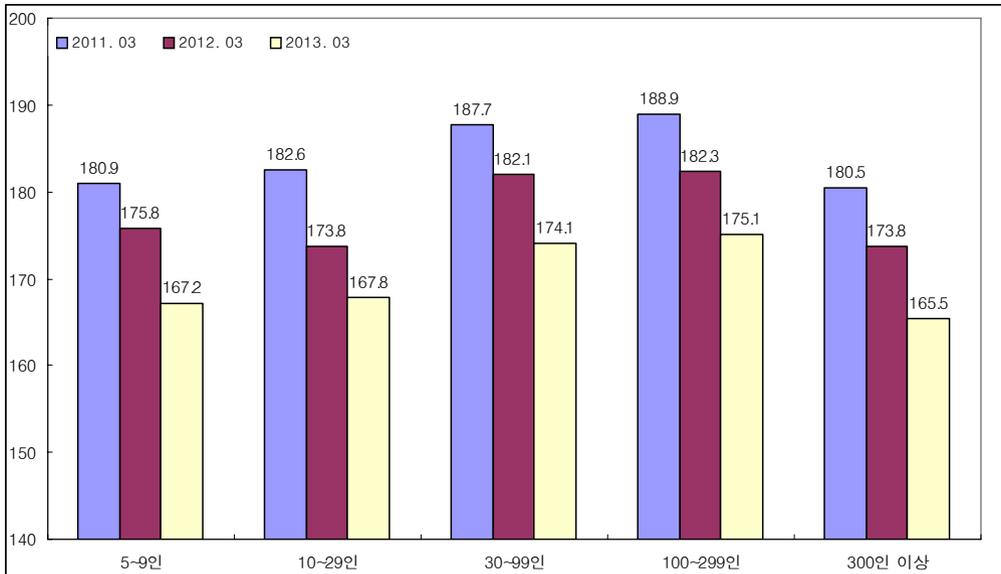
체의 총 근로시간은 174.1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4.4%, 100~2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5.1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3.9%, 300인 이상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65.5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4.8% 감소함(그림 11 참조).

○ 한편 2013년 1~3월 평균 사업체규모별 전체 근로자 근로시간 역시 모든 규모에서 감소함.

- 상용근로자 5~9인 사업체의 2013년 1~3월 평균 총 근로시간은 168.2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2.8%, 10~29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69.7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1.3%, 30~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4.1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2.5%, 100~2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5.5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2.6%, 300인 이상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67.4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2.7% 감소함.

[그림 11] 규모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

(단위: 시간)



주: 전체 근로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정성미,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

##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 진주의료원 폐업 공식 발표

-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은 지난 5월 29일 진주의료원을 폐업한다고 공식 발표함.
  -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남도와 도의회에서 수차례 경영개선을 요구했지만 자구노력 없이 기득권만 유지하고자 하여 의료원의 회생가능성을 발견할 수가 없어 폐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힘.
  - 또한 홍준표 경남지사는 “진주의료원 문제는 1999년 도의회에서부터 제기된 문제로 더는 미룰 수 없었다”며 “도의 부채가 1조 4,000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폐업은 불가피했다”고 설명함.
  - 이에 보건의료노조 측은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결론”이라며 “폐업을 철회하고 재개원하라”고 촉구함.
  - 대한의사협회는 “경남도의 결정이 적자를 초래하는 의료제도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적자경영이라는 길으로 나타난 현상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국민에게 넘긴 것”이라고 지적함.
- 경남도의회는 6월 11일 본회의에서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고 가결함.
  - 민주개혁연대는 12일 기자회견에서 “11일 경남도의회에서 처리된 진주의료원 해산을 위한 ‘경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통과는 원천 무효”라며 보건복지부에 “법령 검토를 통해 조례 심의를 다시 하도록 경남도에 요구하라”고 촉구함.
  - 또한 보건의료노조와 시민·노동단체 관계자는 “법적 투쟁과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힘.
  - 이에 경남도 관계자는 “조례 무효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정당한 절차에 따라 조례가 처리되었다”라고 말함.
- 이에 앞서 여야는 지난 5월 31일 진주의료원과 관련해 공공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함.

- 양당의 관계자는 “공공의료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함.
- 이에 노조 관계자는 “진주의료원 휴·폐업 과정의 각종 의혹, 입원환자 강제 퇴원과 인권 침해, 전 직원 해고의 적법성 등을 국정조사에서 따져보아야 한다”고 말함.
- 하지만 홍준표 경남지사는 6월 20일 “국회가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행위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한 업무수행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힘.

### ◆ 통상임금을 둘러싼 논란 지속

-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 여부에 관해 고용노동부와 재계, 노동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이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노동계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입법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지난달 정부가 제의한 노사정 대화를 거부함.
  - 이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을 연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사정 대화 대신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임금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함.
  - 한 관련전문가는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한다면 전체 고용률이 1%포인트 낮아져 정부의 고용률 제고정책 추진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함.
  - 그러나 또 다른 전문가는 “통상임금 산정기준은 고정적 상여금과 기타 수당을 포함하는 방향에서 고용노동부 지침을 변경하거나 법으로 정하면 된다”며 “결국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대기업을 중심으로 장시간 노동 유인이 줄어들면서 연장근로시간이 줄고 신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함.
- 고용노동부는 6월 21일 임금제도개선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함.
  - 6월 21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위원회는 향후 2개월간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알려짐.
  - 한국노총 관계자는 “임금체계가 단순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이는 각종 수당을 통합해 기본급 비중을 높여 결국 통상임금을 올리는 것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함.
  - 민주노총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제시하는 임금체계 개편 방안은 연공급을 부정하고 사용자가 요구해 온 성과직무급 위주로 가려는 것”이라며 “노사정 대화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밝힘.

-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위원회를 통해 최대한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내 이를 토대로 법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함.
- 한편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공단 노조인 사회보험노조는 6월 13일 공단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함.
  - 이번 소송에는 사회보험 노조원 6,375명이 참여하고, 이들은 정기상여금, 명절 효도비,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반영해 시간외수당의 재산정을 요구함.
  - 사회보험노조 관계자는 “단순히 임금청구소송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문제의 핵심은 통상임금 범위를 늘림에 따라 직급별 시간외 근무시간을 줄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데 있다”고 말함.
  -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강원랜드 노조는 15일 회사 측을 상대로 춘천지법에 집단소송을 제기함. 한 노조 관계자는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공기업 직원들도 정당하게 인정받아야 할 통상임금에 대한 권리를 찾기 위한 것”이라고 말함.

◆ **한국일보, 편집국 폐쇄를 둘러싼 논란**

- 한국일보는 6월 15일 ‘근로제공확약서’에 동의하지 않은 기자들의 편집국 출입을 제한하고 편집국과 기사 집배신 시스템을 폐쇄해 논란이 커지고 있음.
  - 회사 측은 “편집국 폐쇄가 아닌 정상화 조치”라며 “근로제공 의사가 없거나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해 신문제작을 방해하려는 자에 한해 선별적으로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함.
  - 이에 한국일보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는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자 기자들의 정당한 취재권리를 방해한 불법조치에 해당한다”며 한국일보의 정상화를 촉구함.
  - 한 변호사 협회 관계자는 “노조의 과업이 없었다는 점에서 회사 측의 직장폐쇄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함. 또 다른 변호사 협회 관계자는 근로제공확약서에 관해 “확약서의 본질은 경영진의 요구와 지시에 따르는 신문발행에 협조하라는 것으로 언론의 자주성과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함.
  - 한편 한국일보는 노조 측이 지난 4월 사주의 배임 의혹에 대해 고발하고 회사 측은 편집국장을 경질하는 등 노사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 ◆ 르노삼성자동차 노조, 부분파업

- 르노삼성자동차 노조는 6월 3일, 5일, 17일 부분파업을 벌임.
  -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파업은 회사 측의 임금 동결, 연월차 비가동일 사용 등 후퇴된 복리후생 요구에 반발해 파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짐.
  - 회사 측은 “경영 상황이 어려운 때에 노조 측이 쟁의행위를 결정해 안타깝다”며 “끝까지 대화를 하며 사원들에게 회사 상황을 설명하겠다”고 밝힘.
  - 노조 측은 “지난해 희망퇴직 이후 갈수록 악화되는 근무여건과 고용안정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고 말함.
  - 한 자동차 부품업체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운 만큼 노사가 화합해 좋은 결과를 얻어내야 한다”고 지적함.

### ◆ 중구청, 쌍용자동차 임시 분향소 강제 철거

- 중구청은 6월 10일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분향소를 강제 철거함.
  - 중구청 관계자는 “5월 27일과 31일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 측에 두 차례 ‘자진 철거 촉구 이행 안내문’을 보냈다”며 “경찰이 대한문 앞 집회를 불법으로 판단했고 도로법상 노상 적취물은 언제든지 정비할 수 있기 때문에 철거한 것이다”라고 설명함.
  -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옥외집회금지통고 취소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적 다툼을 하는 중인데 중구청이 계고장 없이 분향소를 기습 철거했다”고 반발함. 또한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이 없는 한 대한문을 떠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노숙농성을 벌임.
  - 한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5월 30일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의 대한문 앞 집회에 대해 “공공의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옥외집회 금지통고를 내린 바 있음.

### ◆ 삼화고속버스 노사, 협상 타결

- 삼화고속버스 노조는 6월 8일 회사 측의 일부 노선 매각 결정에 반발해 파업에 돌입함.
  - 삼화고속버스 회사 측은 “수익구조가 나빠진 상태에서 노조의 통상임금 청구소송에 대비한 자금을 확보하려면 노선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함.

- 이에 노조 측은 “적자 노선 반납과 요금 인상으로 수익 개선이 이뤄졌음에도 노조원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노선 매각을 진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파업에 돌입함.
- 삼화고속버스 노사는 10일 “실무교섭에서 회사 측이 매각의사를 밝힌 3개의 시외버스 노선 소속 근로자를 고속노선으로 공정하게 전환배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 회사 측은 “노사가 현명하게 판단해 협상했고 이후에도 남은 쟁점들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성실히 교섭하겠다”고 말함.
  - 노조 측은 “매각노선 운전자들을 정리하고 하지 않는 조건을 받아들이고 향후 교섭에서 남은 문제들을 해결하기로 했다”고 밝힘.
- 한편 삼화고속 노조는 지난 5월 13일 회사 측의 임금체불에 반발해 경고파업에 돌입한 바 있음.
  - 이로 인해 인천-서울을 운행하는 총 22개 노선 중 삼화고속이 보유한 11개 노선 177대의 운행이 전면 혹은 부분 중단됨. 이번 파업에는 노조원 499명 중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270여 명이 참여함.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근로시간면제 한도 조정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6월 14일 타임오프 한도 조정 방안을 의결함.
  - 근로시간면제 조정 방안은 7월 이후 조합원 50인 미만 노동조합의 타임오프 한도를 기존 1,000시간에서 2,000시간으로 늘리고, 전국 규모 1,000명 이상인 사업장의 노동조합에는 타임오프 가중치를 두기로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함.
  - 이에 한국노총 관계자는 “미흡하지만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한도가 조정돼 다행”이라고 밝힘.
  - 민주노총 관계자는 “해외의 타임오프는 노조활동시간의 하한선을 정해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반면, 한국 정부는 상한선으로 규제해 오히려 노조활동을 위축시켰다”며 타임오프제 폐기를 주장함.
  -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기존 타임오프 한도도 실제 조합 활동에 필요한 시간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됐는데 이를 더 늘린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번 결정은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지적함. **KLI**

(박지은, 동향분석팀 연구원)